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1년 4월 조사 -

2021년 5월 10일
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제조업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개선

~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개인 서비스가 악화, 체감경기의 양극화 경향이 진행돼 ~

(조사대상 2만 3,707사, 유효회답 1만 1,003사, 회답율 46.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1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38.3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이 억제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침체도 나타나나 완만히 상향하여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제조』 등 5개 업계가 개선, 『서비스』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제조』는 반도체관련 및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견조하여 개선경향이 계속되었다. 한편 『서비스』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및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을 받아 「음식점」 등의 개인서비스가 다시 침체하였다.
- 『키타칸토』 『토호쿠』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킨키』 등 2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및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각 지역의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3개월 연속 개선된 한편 「소규모기업」은 3개월 만에 악화로 나타났다.

< 2021년 4월의 동향 : 상황 >

2021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38.3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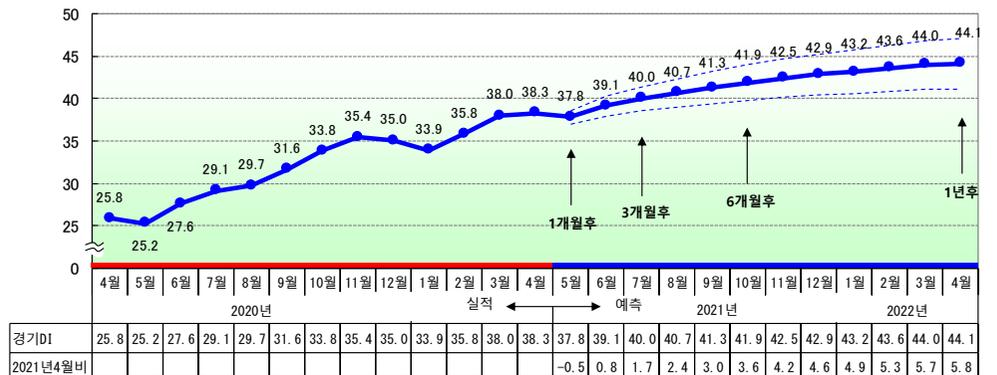
4월의 국내경기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 지역 확대 및 3번째 긴급사태선언의 발표 등, 경제활동이 억제된 가운데의 추이로 나타났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경제의 회복 경향으로 인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한편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소자 제조를 포함하는 관련 업계가 고수준으로 추이하였다. 게다가 자택 내 소비는 계속해서 확대 경향이 계속되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등 인파 억제가 진행되어 음식점 및 료칸·호텔 등 개인 서비스가 크게 침체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감산(減産) 및 공장의 가동정지 등도 악재가 되었다.

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이 억제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상향 경향 >

향후의 국내경기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 및 긴급사태선언의 발표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의 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정상화 및 해외 경제의 회복 등도 있어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택 내 소비의 확대 등 신규 수요의 창출 및 5G의 본격적인 보급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동향으로 인한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크다. 게다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의 감산(減産) 및 하계상여의 감소, 원재료 가격의 상승, 기업 업적의 업종간 격차 확대 등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침체도 나타나나 완만히 상향하여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